

안전사용의 4 가지 지표

안전사용은 (1)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2)작물에 대한 안전 (3)농산물에 대한 안전 (4)환경에 대한 안전 등 4 가지 안전을 확

보하는 것이다.

이중 1가지만 결여되어도 안전사용 목적은 달성하기 곤란하다.

(1)사용하는 사람의 안전 : 사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키는 일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사용자 자신이 건강관리를 비롯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약사용상의 제반사항을 확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2)작물에 대한 안전 : 병해충이나 잡초가 방제되어도 작물에 약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약해를 일으키기 쉬운 조건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량을 살포해야만 한다.

(3)농산물에 대한 안전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잔류기준을 넘지 않도록 안전사용기준을 확실히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4)환경에 대한 안전 :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환경의 영향,

특히 하천·호수·바다 등의 오염과 인근주민, 유용동식물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라벨」에 쓰여있는 안전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고, 적합한 농약의 종류와 제형을 선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도 필요하다.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1) 사용하기전에

① 「라벨」을 반드시 읽어라
농약의 「라벨」에는 성분·독성을 비롯하여 사용해도 좋은 작물의 종류, 대상병해충과 잡초명, 희석배수, 약량, 사용량, 회수 및 주의사항 등 그 농약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쓰도록 필요한 사항이 쓰여져 있다.

특히 농약은 새로운 시험결과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때

가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농약은 물론 사용해 본 농약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라벨」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② 방제복을 꼭 준비하자

농약을 살포할 때의 장비는 꼭 중장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이상의 장비는 작업능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체력을 소모시킨다.

방제복은 때(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따라 정하며 대상작물이나 재배조건, 농약의 제형이나 살포방법에 따라 더욱 적합한 것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

③ 방제기구를 정비·점검 하자

작업중에 방제기구의 고장으로 약해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방제에 쓰는 기구는 사전에 충분히 정비·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제살포는 호스의 접착부위의 불량으로 약액이 누출되어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호스와 노즐부위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④ 건강관리를 잘 합시다

농약사용이 많은 시기는 고온의 악조건이 겹쳐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농약살포는 생각보다는 중노동이므로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살포전일은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살포에 대비해야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① 피로한 사람

② 체력 특히 간기능이 쇠약한 사람

③ 수면이 부족한 사람

④ 특이 체질인 사람(아르레기성 체질)

⑤ 임신·생리중인 부인

⑥ 손·발등에 외상이 있는 사람

※ 피로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임신·생리중인 부인은 약물에 민감하여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2) 사용할 때

① 살포액 조제시 주의 하자. 농도가 짙은 액제와 수화제를

취급할 때에는 직접 닿거나 호흡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무장갑·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액제는 속마개를 열때, 수화제는 개봉할 때 주의를 해야한다.

수화제의 개봉은 탁탁 쳐서 약제를 봉지 밑으로 모은다음 윗부분을 접어서 개봉하게 되면 가루가 나르지 않고 안전하다.

② 정해진 희석배수·사용량을 지키자

너무 농도를 짙게 하거나 사용량을 많이하면 농약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어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약해를 일으키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희석배수나 사용량을 철저히 지켜 살포해야만 한다.

③ 살포작업은 서늘한 시간에 한다

작업시간이 동일해도 아침·저녁 서늘할 때 살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울 때 하는 것과는 피로의 정도가 다르다. 논에서 무더운 여름 한낮에 살포하는 것과 하우스내의 고온시 살포는 가급적 피하고 선선한 아침·저녁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바람의 영향에 주의하자
바람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 입제를 제외하고는 풍속 3m(나무잎이나 가지가 움직이는 정도)를 넘는 조건하에서의 분제·액제 살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미풍(微風) 조건하에서도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한다.

⑤ “파이프다스타”호스의 중

간을 절대로 들지 말자
파이프다스타로 살포할 때 호스의 중앙부는 농약의 농도가 높아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긴 호스라도 풍량(風量)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이 들리는 것을 조절해야 한다.

⑥ 주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바람이 강할 때는 농약의 비산(飛散) 때문에 인근 농가, 가축, 물고기, 벌, 뽕나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살포할 때에는 주변환경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으로 날라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⑦ 장시간의 연속살포 작업은 하지 않는다

살포작업은 피로가 따르기 마

런인데 한 사람이 오랜시간 살포작업을 계속하면 좋지 않다. 살포작업은 2시간 정도를 한도로 교대살포하고 쉬지않고 장시간에 살포할 경우에는 2시간당 3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⑧ 작업중에는 금연을 하고 음식물은 먹지 않는다

작업중에는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고 음식은 농약성분이 체내로 직접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부득이 할 때는 손과 얼굴등을 깨끗히 씻은 후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3) 사용한 후

① 남은 농약이나 살포액 처리는 철저히 하자

조제후의 살포액은 그 장소에서 사용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남아있다거나, 개봉된 농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가) 남은 농약 :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속뚜껑과 마개를 꼭 잠그고 필히 정해진 안전한 보관장소에 넣고 자물쇠로 잠근다. 우유병이나 콜라병에 옮겨 담아두게 되면 잘못 알고 마시는 등 음독사고를 초래하므로 음료수병 등에는 절대로 농약을 담

아두어서는 안된다.

(나) 수화제 · 분제 · 입제 등 : 봉지입구 부분을 2 - 3 회 접어서 접착테이프로 단단히 봉하여 정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나머지 약액(殘液) 및 씻은액(洗淨液)의 처리 : 남은 살포액이나 방제기구의 세척액을 용수나 하천에 흘려보내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② 빈병 · 빈봉지의 처리는 철저히 하자.

쓰고난 빈병이나 빈봉지는 포장주변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철저히 처분해야 한다.

(가) 유리병 : 쓰고난 농약병은 새마을 영농화 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약 빈병 수집장에 안전하게 모으도록 하여 빈병공해가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회수해야 한다.

(나) 플라스틱병 : 포장주변에 방치하면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고 생각지 않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 빈플라스틱병은 잘 세척한 후 마개를 빼고 즉시 소각 처분한다.

플라스틱재료는 가연성이므로 신문지나 불이 잘 붙는 것을 이용하면 간단히 태울 수 있다.

(다) 빈봉지 : 빈 봉지는 작업 중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작은 돌등으로 눌러놓고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수하여 소각한다. 수화제 은박봉투도 불에 태우면 붙어있는 합성수지 막이 타게되어 가스밖에 남지 않으므로 안전한 처분방법이 될 수 있다. ※ 은박봉투는 시판되고 있는 식품 포장에 잘못 사용되거나 어린이 장난감에 쓰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몸을 깨끗히 씻는다

살포작업이 끝나면 손과 얼굴 등 노출부위를 비누로 씻고 입안과 눈등 몸 전체를 깨끗히 씻

는다.

살포에 사용했던 작업복은 깨끗이 세탁해서 다음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특히 농약이 묻은 작업복은 어린이의 옷과 구분하여 따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④ 음주를 하지않고 일찍 잔다

농약을 살포한 당일은 음주를 하지않고 영양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⑤ 만일 신체에 이상을 느낄 때는

살포중이나 살포후에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내가 쓴 농약빈병

한데모아 환경보전